



‘하나될 민족의 미래’ 하얀 종이위에 상상 나래

연/중/기/획



창조력 교육 운동

제2부 창조력교육 실천하는 사람들

⑦제7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2000년 6월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다. 분단 55년만에 남북 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두 정상은 이를 뒤인 6월15일 5개항의 합의 내용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명시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돼 최근 통일 열차가 서울과 평양을 오갔다. 그로부터 꼭 7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전주에서 또다시 통일을 염원하는 맑고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6일 오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 제7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에 참가한 초·중·고 학생들이 나무그늘 아래서 통일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2

007년 6월16일 오후. 국립전주 박물관에서는 뜻깊은 통일행사가 열렸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원장 최순산)이 6·15 선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제7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이 그것.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 속에도 주최측이 당초 예상한 참가인원 2,000여명은 행사시작 1시간 전에 이미 넘어서는 정도로 이날 행사의 참여열기는 뜨거웠다.

학부모, 교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은 피아노를 피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밝은 표정으로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그리며, 미래를 노래했다.

‘오고가는 남북, 다가오는 통일’ ‘6·15 공동선언’, ‘전쟁은 싫어요 평화를 원해요’, ‘통일열차를 타고’ 등 4개의 주제를 받은 학생들은 글과 그림, 노래로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아이들의 표현은 거칠었지만 담백했고, 논리는 허술한 듯했지만 정연했다.

‘... 우리들이 만나서 통일을 이야기해 우리들을 만나, 서로 위해서 가는 길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통일만 생각해 우리들이 할 수 있어...’

통일노래 가사 바꿔부르기에 참가한 전주제일고 김현수 등 4명은 그룹 녹색지대의 ‘준비없는 이별’의 노랫말을 바꿔 ‘준비하는 통일’을 노래했다. 그룹사운드의 강렬한 비트 속에서 이들은 “통일은 이제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남북 북 서로가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친구들과 단체로 통일글쓰기에 참가한 김재중중 임소정은 통일 해방꾼들 때문에 통일이 미뤄지고 있다며 소신을 밝혔다. 소정이는 “남한의 물질만능주의와 기독교권의 욕심이 통일을 막고 있다. 북한에서 통일을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멍청한 생각을 버리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 통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통일론을 거침없이 주장했다.

군산에서 일마와 함께 온 서해초 5학년 최봉환은 하얀 도화지에 총을 버리고 무릎 꿇은 채 벌을 서고 있는 군인과 그 맞은 편에 휴전선을 철거하는 통일일꾼을 대비해 그렸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에 참가한 정음 왕신여중 학생들이 화려한 부채춤과 함께 ‘우리는 하나’를 열창하고 있다.

청소년 2,000여명 글쓰고 그리고 가사바꿔 노래 수많은 장애 넘어 이를 통일의 날 거침없이 표현

봉환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북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황폐화된다.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고 포박포박 말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애들도 안하는 짓을 한다”며 따갑게 질책했다. “애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친해지는데 어른들은 화해나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싸우며 원파시킨다”고.

분단 이후 긴 세월동안 어른들이 머리만 통일을 생각해왔다면, 이날 아이들은 가슴으로 그것을 표현했다.

어른들이 입으로만 통일을 되뇌일 때 아이들은 몸짓으로 통일을 말했다.

또 어른들이 도화지에 어두운 물감으로 통일을 채색할 때 아이들은 밝고 화사한 통일을 그렸다. 교과서와 뉴스에서만 보고 들으며 멀게만 느꼈던 통일을 아이들은 이날 행사가 진행된 3시간여의 짧은 시간안에 자신을 걸고로 가까이 끌어왔다.

행사를 주최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명영 이사장은 이날 박물관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을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갈

통일일꾼으로 칭했다.

그는 “통일일꾼은 일상적으로 통일에 관심을 갖고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과 통일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며 “청소년들이 통일을 표현하며 즐기고, 북녘 어린이들에게 적극 참여하는 것이 통일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여고 3학년 박서영은 ‘휴전선의 봄-가장 아름다운 당신께’라는 글에서 재작년 작고하신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비극적인 분단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6·25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께서 인생의 황혼기를 왜 슬로만 보내야 했는지를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당신이 쓴 총에 죽어간 북녘의 병사들을 생각하면 죽어서도 임신후국원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다죠. 아직까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남·북의 군인들이 곧 어두운 안경을 벗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리웠다고 말하는 날 휴전선의 봄이 올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통일이 꼭 되어야 할테니’라며 눈을 감으셨던 당신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자랑스롭습니다.”

/글=김중성기자 jau@sjbnews.com · 사진=이원철기자 kppa7@sjbnews.com

“남북한 사람들 어울려 사는 게 통일 아닐까”



전주 이중중 합합보이들. 왼쪽부터 김도연, 이대희, 김민준, 박정균.

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들의 공연에 대해 소감을 밝힌 뒤 통일에 대해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통일은 우리나라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해. 바람직한 통일방식으로는 독일식 통일인 것 같아.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변국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대희=통일이 거의 우리곁에 다가온 것 같아. 남북한이 계속 교류하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다보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다가올거야. 멀리않아 대한민국도 분단국가가 아닌 통일국가로 불리워지게 될거야.

△도연=통일은 잘 모르지만 북한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 통일이 아닐까.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전쟁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거야. 또 만일 전쟁이 일어나려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해. 전쟁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지.

△정균=북한하고 교류는 많았는데 북한 핵문제 때문에 통일이 멀어진 것 같아. 북한은 태도를 고쳐야 하고, 우리도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해. 휴전선 부근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남북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되거든.